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2011년 9월 22일 | Vol. 2 No.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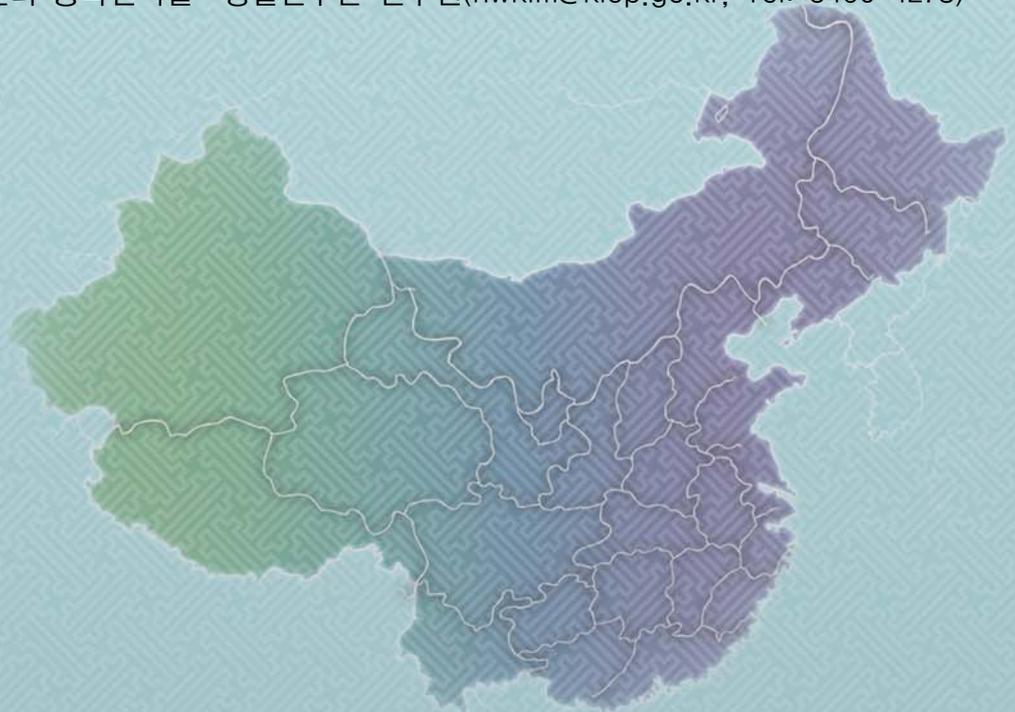
ISSN 2093-3282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산둥성, 저장성, 광둥성)의 비교 및 평가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syno@kiep.go.kr, Tel: 3460-1284)

오종혁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ojh@kiep.go.kr, Tel: 3460-1286)

김흥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hwkim@kiep.go.kr, Tel: 3460-1278)



차례 ●●●

1. 추진배경
2. 지역별 해양경제 발전규획
3. 지역별 해양경제 발전현황
4. 평가와 전망

주요 내용

-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확보가 중대한 문제인 중국은 2003년부터 해양경제를 육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해양경제는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을 통칭함. 중국에서 말하는 주요 해양산업에는 어업, 석유·가스, 전력, 바이오·의약, 선박, 해수이용, 교통운수, 제염, 건설, 화공, 관광, 광업 등이 포함됨.
 - 중국의 해양경제는 제1차 5개년 규획(2006~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 중국은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의 일환으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1년 들어 산둥(山東)성, 저장성(浙江), 광둥(廣東)성 등 3개 지역을 잇달아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구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해양경제를 육성한다는 의지를 밝힘.

 - 산둥성은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을 발표하고, 해양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남색경제구를 한·중·일 자유무역 선도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임.
 - 저장성은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을 발표하고, 중국 최대의 경제권인 창장삼각주와 유일한 군도 형태의 신구를 배경으로 물류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할 계획임.
 - 중국 최대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광둥성은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규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변 지역 및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 중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향후 해양경제 육성시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하면서 해양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 마련과 지역간 해양산업 중복투자 문제 해결이 과제임.

1. 추진배경

- 중국의 해양경제는 제1차 5개년 계획(2006~1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13.5%의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¹⁾ 권역별로는 환보하이(環渤海)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010년 중국 해양경제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3조 8,439억 위안이며, 이는 중국 전체 GDP의 9.7%에 해당함.
- 주요 해양산업 중 총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3대 산업은 해양관광(31.2%), 해양교통운수업(24.6%), 어업(18.1%)임.
- 또한 해양석유가스개발(53.9%), 해양전력(30.1%), 해양바이오·의약산업(25%) 등 신해양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해양건설 분야도 내수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함.

글상자 1. 해양경제와 해양산업

- 해양경제는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을 통칭함.
- 중국에서 해양산업은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의미함. 주요 해양산업으로는 해양 및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석유·가스, 전력, 바이오·의약, 선박, 해수이용, 교통운수, 제염, 건설, 화공, 관광, 광업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해양산업은 크게 전통해양산업(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과 신해양산업[해양과학기술산업(바이오, 에너지, 수중로봇), 해양관광(요트, 마리나, 크루즈, 레저 및 스포츠), 해양자원, 해양환경]으로 구성됨.
- 특히 중국은 해안에 위치한 모든 공업까지 해양산업에 포함시켜 한국에서 말하는 해양산업의 범주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해양국(2011. 3), 「2010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2011. 8. 12)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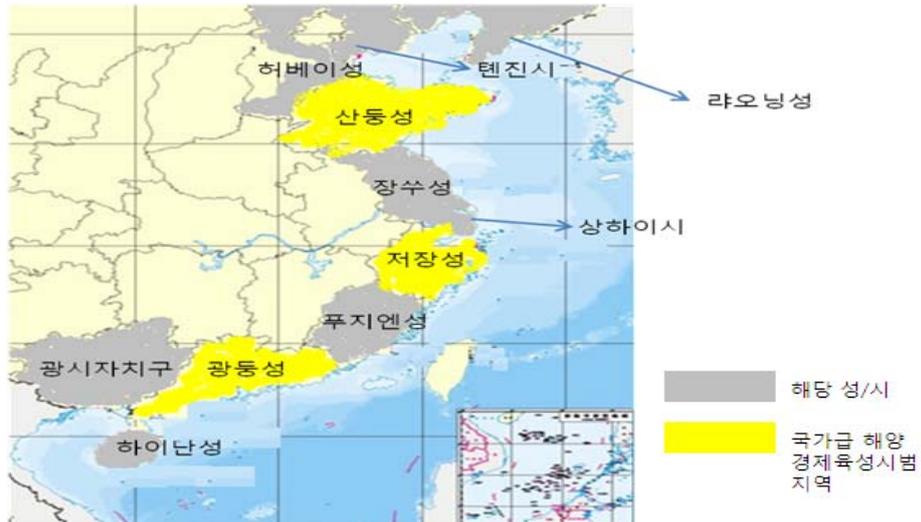
- 2010년 권역별 해양 관련 총생산액은 △ 환보하이지역이 약 1조 3,270억 위안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해 전체 1위이고 △ 창장(長江)삼각주지역이 약 1조 2,000억 위안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해 2위이며 △ 주장(珠江)삼각주지역이 약 8,300억 위안으로 21.6%를 차지해 3위임.
- 환보하이지역이나 창장삼각주지역이 복수의 성(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주장삼각주지역은 광둥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단일 성으로는 광둥성의 비중이 가장 큼.

1) 『人民日报』(2011. 4. 30), 「“十一五”我国海洋经济年均增速13.5%」.

■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양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3년부터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잇달아 발표해옴.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 방식에 의존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최근 에너지·자원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에서 그 해결법을 찾고 있음.
- 해양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부족 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함.
- 중국은 11개의 성·시²⁾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장 길이인 약 1만 8,00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해양생물 2만여 종, 해저석유 부존량 약 246억 톤, 천연가스 부존량 1조 4천억³⁾ 등 해양자원이 풍부함.

그림 1. 중국의 해양경제



-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해양경제 및 해양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을 발표해옴.
- 국무원은 2003년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해양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양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전국 해양경제 발전규획(全國海洋經濟發展規劃綱要)」을 비준하였음.
- 또한 국무원이 2008년 비준한 「국가 해양사업 발전규획 강요(國家海洋事業發展規劃綱要)」에서는 해양 자원, 해양환경, 해양경제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³⁾

2) 구체적으로는 상하이시, 텐진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지엔성, 광둥성, 하이난성, 광시 자치구가 해당됨.
 3) 『海洋財富網』(2010. 10. 31), 「國務院研究室副主任：充分認識海洋的戰略意義」.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9년 4월 ‘남색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⁴⁾라는 해양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함.⁵⁾
- 특히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의 일환으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들어 산둥(山東)성,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등 3개 지역을 잇달아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구로 지정함.⁶⁾

2. 지역별 해양경제 발전규획

가. 산둥성

- 산둥성의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은 2011년 국무원이 첫 번째로 비준한 지역발전 규획이자, 해양경제를 주제로 한 중국 최초의 지역발전 규획임.
 - 연초에 첫 번째로 발표되는 1호 문건에는 중국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내용이 포함됨.
 - 남색경제구는 향후 환보하이 경제권의 남부 벨트 역할을 담당하며, 한중일 자유무역 선도구역으로 육성될 계획임.
- 상기 규획에서는 이를 위해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임.
 - 또한 2015년까지 해양산업 연평균 15% 이상 성장,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8만 위안 이상, 도시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어 2020년까지 해양산업 연평균 12% 이상 성장, 1인당 생산총액을 12만 위안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화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해양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며 생태계 순환 시스템을 따른다는 개념으로 기후변화 시대의 친환경적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음(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 11. 5), 「녹색성장 글로벌 해법, 해양에서 찾는다」).

5) 胡光宇(2011. 5. 26), 「중국 국정연구의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풀, <http://www.kiep.go.kr>.

6) 「제12차 5개년 계획」에는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해양산업구조 고도화 △ 해양관리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 특히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해양산업의 성장,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어업의 현대화, 해양건설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
- 동시에 해양 관련 식품가공, 석유화학 등 전통적 해양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할 예정임.

■ 산둥성은 2011년 10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경제구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점기술 개선 항목에 대해 해양경제구역 투자펀드를 설립하고, 선박, 해역사용권 등에 대해 담보를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⁷⁾

나. 저장성

■ 저장성은 2011년 3월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浙江海洋經濟發展示範區規劃)」을 발표하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도매시장과 해양산업시범구를 결합시켜 육·해 복합운송네트워크와 금융정보 시스템이 완비된 종합 항운물류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1개의 센터, 4개의 시범구’를 설립할 계획임.
- 1개의 센터는 주요 상품의 국제물류센터 건설을 의미하고, 4개의 시범구는 △ 군도형 개발 개방·개혁 시범구 △ 첨단 해양산업발전시범구 △ 육·해 협력발전시범구 △ 해양생태문명 및 청정에너지시범구 건설을 의미함.

■ 또한 저우산군도(舟山群島) 일대가 2011년 7월 7일 중국의 네 번째 국가급 신구(新區)로 지정됨.

- 상하이 푸둥(浦東),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충칭(重慶) 량장(兩江) 량장 신구에 이은 네 번째 국가급 신구임.
- 저우산군도는 1,3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저우산군도 신구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군도형(群島型) 신구임.
- 저우산군도는 중국의 동부 연안과 창장삼각주의 해양진출 관문으로, 저장성 일대 해양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창장삼각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육성될 계획임.
-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현재 작성 중이며, 빠르면 연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7) 강승호(2011), 「산둥반도 해양경제구 발전계획」, 『인차이나 브리프』, 제197호, p. 9.

■ 저장성 정부는 해양경제 육성을 위해 각종 우대정책과 자금투입 계획을 발표함.

- <저장성 ‘12·5 기간’ 해양경제 중대건설프로젝트 계획(浙江省 “十二五”海洋經濟重大建設項目規劃)>을 발표함.
 - 해양경제 발전방향에 부합하면서 부대효과가 큰 기초시설, 생태보호, 신해양산업 등 중점건설 프로젝트 500건에 총 1조 위안(12·5 기간 6,6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저장성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해양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신용대출, 금융혁신, 협력 등을 강조함.
 - 아울러 16개 성급 금융기관과 저우산시 정부는 7월 5일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으며, 8개의 금융기관이 저우산시 소재 6개 기업과 43억 위안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협약을 체결함. 대출대상에는 간척사업, 물류업, 조선업 등이 포함됨.
- 저장성 국세국(國稅局)은 7월 24일 <해양경제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海洋經濟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고, 해양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0대 납세 조치를 밝힘. 아울러 해양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개의 세제상 우대정책을 밝힘.
 - 우대정책으로는 신산업 발전과 구조조정, 연안기초시설 정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장려를 위한 세제상의 우대정책 등이 포함됨.

다. 광둥성

■ 광둥성의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廣東海洋經濟綜合試驗區發展規劃)」이 7월 국가급 계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 계획은 4대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함.

- 광둥성의 해양경제 발전계획은 구체적으로 △ 국제경쟁력이 있는 해양경제 핵심지역 건설 △ 해양과 학기술 혁신 및 상용화 촉진 △ 해양생태문화건설⁸⁾ 시범지역으로서 역할 강화 △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목표로 함.
-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어업과 운수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해공업, 해양 플랜트 설비, 해양선박, 해양바이오·의약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경제 분야에서 홍콩, 마카오, 푸지엔(福建)성, 광시(廣西)자치구, 하이난(海南)성 등 주변지역과의 협력확대를 강조함.⁹⁾

8) 해양생태문화건설은 해양생태계와 해양문화의 보호 및 상용화와 관련된 사업을 가리킴. 여기에서 해양문화는 해양민속생활 풍습, 해양유적·유물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화자원을 말하며, 일례로 우리나라 목포시에서 해양경관과 문화를 활용하여 매년 목포해양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종합실험구 내 서부지역은 광둥성-윈난(雲南)성-광시자치구 경제협력권 및 하이난성과 맞닿아 있으며, 이들 지역과 함께 해양관광업, 어업, 해양 관련 기초시설 등을 중점 발전시킬 계획임.
 - 종합실험구 내 동부지역은 푸지엔성의 해협서안경제권과 연결되므로 푸지엔성과 어업, 해양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
 - 종합실험구의 핵심인 주장삼각주지역은 광둥성-홍콩-마카오경제권과 맞닿아 있으므로 홍콩, 마카오와 해양운수, 물류창고, 해양플랜트제조, 섬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함.¹⁰⁾
- 광둥성 해양·어업국 정웨이이(鄭偉儀) 국장은 9월 6일 광둥성 내 해양교통운수, 어업, 조선업 관련 기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¹¹⁾
- 광둥성은 해양교통운수, 어업, 조선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음. 이에 따라 광둥성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광둥성에 제공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들 산업에 배정해 지원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할 계획임.
 - 그 밖에도 해양바이오의약, 장비제조, 재생에너지 등 해양 관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표 1. 3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의 발전규획 비교

| | | 산둥성 | 저장성 | 광둥성 |
|----------|------|--|--|---|
| 규획명칭 | |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 規畫) |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범구 규획 (浙江海洋經濟發展示範區 規畫) |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규획 (廣東海洋經濟綜合試驗區 發展規畫) |
| 발표시기 | | 2011. 1 | 2011. 3 | 2011. 7 |
| 개발기간 | | 2011~20년 | 2011~20년 (~2015년이 중점추진기간) | 2011~20년 |
| 개발 면적 | 해역면적 | 15만 9,500km ² | 26만km ² | 41만 9,000km ² |
| | 육지면적 | 6만 4,000km ² | 3만 5,000km ² | 8만 4,000km ² |
| 대상지역 | | 칭다오, 둥잉, 옌타이, 웨이팡, 웨이하이, 르자오 등 6개 시와 빈저우시의 2개 현 | 항저우, 닝보, 윈저우, 자싱, 사오싱, 저우산, 타이저우시 등 7개 시 | 광저우, 선전을 포함한 14개 시 |

9) 『21세기经济报道』(2011. 7. 21), 「广东海洋经济综合试验区获批」.

10) 『南方日报』(2011. 7. 20), 「广东向海上发展迎来新契机, 海洋大省大步迈向海洋强省」.

11) 『新浪』(2011. 9. 7), 「广东加入海洋经济角逐, 财税金融政策将予以支持」.

표 1. 계속

| | | 산둥성 | 저장성 | 광둥성 |
|---------------------------|------------------------|--------|-------------------------------|-------------------------------|
| 주요 목표 (2015년 기준) | 지역내총 생산 (GRDP) | - | 2조 6,000억 위안 (저장성 전체의 3/4) | - |
| | 1인당 GRDP | 8만 위안 | 8만 6,000위안 | - |
| | 해양산업 총생산액 | - | 7,000억 위안 (중국 해양경제의 15%) | 1조 5,000억 위안 (광둥성 전체의 1/4) |
| | 해양산업 연평균 성장률 | 15% 이상 | - | 12.6% |
| | 산업구조 (1차:2차: 3차) | - | 6:41:53 | - |
| | 도시화율 | 65% 전후 | - | - |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1), 「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1), 「浙江海洋经济发展示范区规划」; 「21世纪经济报道」(2011. 7. 21), 「广东海洋经济综合试验区获批」.

3. 지역별 해양경제 발전현황

가. 산둥성

■ 산둥성은 우수한 해양환경과 해양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산둥성에는 전국에서 가장 긴 3,345km의 해안선이 있으며, 연간 3억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항만(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항)이 있음.
- 그 밖에도 해양관련 국가급 기관이 약 60개, 해양과학기술 인력은 전국의 50%에 달해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음.

■ 산둥성의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6,040억 위안(2009년 기준)으로 전국 해양산업 총생산액의 18.9%를 차지함.

- 특히 어업 생산액이 전국 최대 규모이며, 해양염업, 해양에너지²⁾ 등의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

12) 파랑, 조석, 조류, 해류, 해수의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로서, 파력(波力)발전·조력발전·조류발전·해양온도차발전 등을 통해 이용되고 있음(네이버 백과사전).

○ 연해 수역에는 약 1만 4,000톤의 지하염수와 약 23억 8,000만 톤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양생물, 해양에너지 등의 신해양산업과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규획 발표 이후, 남색경제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산둥성 상무청에 따르면, 2011년 1~7월까지 산둥성은 59억 9,0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 중 63.8%가 남색경제구에 집중되었음.

○ 특히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IT, 해양개발, 첨단장비 제조와 항만서비스 분야임.¹³⁾

- 또한 남색경제구의 상반기 무역액은 84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둥성 전체의 76.3%에 달함.¹⁴⁾

나. 저장성

■ **저장성은 3개 지역 중 해양산업 규모가 가장 작으나, 2011년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 발표와 저우산군도의 국가급 신규 지정에 힘입어 해양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임.**

- 저장성 정부가 주관하는 제13회 저장성 투자무역상담회가 6월 해양경제를 주제로 Ningbo에서 개최됨.

○ 상담회에서 소개된 1,076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중 약 900건이 해양경제와 관련이 있음.

○ 해양플랜트, 해수담수화 기술장비,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해양레저관광, 원양탐사기술 등 산업협력프로그램과 친환경보호형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제지, 철강 등 중국에서 말하는 임해공업 및 어업 발전 프로젝트 등이 소개됨.

- 저장성 정부는 또한 민영기업이 △ 물류창고, 선박,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등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 해양교육, 해양과학기술연구 영역 등에서도 국유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간석지, 섬,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¹⁵⁾

■ **최근 저장성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음.**

13) 『Chinadaily』(2011. 8. 10), 「山东半岛蓝色经济区成为外商投资热点」.

14) 『新华网』(2011. 8. 19), 「上半年山东半岛蓝色经济区进出口总额增25.4%」.

15) 『中国青年报』(2011. 3. 27), 「浙江谋划未来五年发展海洋经济」.

- 저장성 진화(金華)시 소재 광샤그룹(廣厦集團)의 저우산 황쩌산도(黃澤山島) 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통과하였음.
- 광샤그룹은 황쩌산도에 2,500만 톤 규모의 석유비축시설과 30만 톤급 부두 2개, 20만 톤급 부두와 10만 톤급 부두 각 1개, 5만 톤급 부두 2개를 건설할 계획임.
- 화리(華立), 완샹(萬向), 화이전기(華儀電氣) 등이 대형선박제조, 석유화학공업, 항구물류, 해양관광,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음.
- 항저우시 소재 국유기업인 난팡시멘트유한공사(南方水泥有限公司)는 향후 3~5년간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5,000만 톤의 시멘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내륙지역의 생산을 포기하고 연안지역에 새로 6개의 생산시설과 2~3개의 연안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다. 광둥성

- 광둥성은 해양 관련 총생산액이 16년 연속 중국 1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특히 교통운수업과 관광업이 발전하였음.
- 광둥성 해양산업은 11·5규획 기간(2006~10년)에 연평균 17.8% 성장했으며, 2010년 광둥성의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8,291억 위안으로, 광둥성 GRDP의 18.2%를 차지함.
- 주요 해양산업 중 교통운수업과 관광업이 광둥성 해양산업 부가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함.
- 11·5규획 기간에 진행된 해양산업 프로젝트 중 전력, 석유화학 관련 인프라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
- 광둥성 정부는 11·5규획 기간 중 해양산업에 총 3,546억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전력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각각 30.2%와 34.1%에 달함.¹⁶⁾
- 전력사업 관련 투자액 중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설투자가 절반 정도에 달함. 타이산(臺山)시와 양장(陽江)시에서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13년에 완공될 예정임.
- 그 밖에도 쿠웨이트와 합작하여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시설을 잔장(湛江)시에 건설할 계획임.¹⁷⁾

16) 2007년 발표된 「광둥성 해양경제발전 “11·5”규획 중대 프로젝트 목록」 내용을 토대로 추정함. 广东省海洋与渔业管理局(2007), 「关于印发广东省海洋经济发展“十一五”规划的通知」.

17) 『南方都市报』(2011. 7. 21), 「千亿大单尘埃落定, 发改委爱在春天里」.

표 2. 3대 지역의 해양자원환경과 발전현황 비교

| | 산둥성 | 저장성(시범구) | 광둥성 |
|------------|---|--|--|
| 해양 관련 총생산액 | 6,040억 위안(2009년, 전국의 18.9%, 2위) | 3,400억 위안(2010년) | 8,291억 위안(2010년) |
| 주요 해양산업 | 어업, 제염업, 해양플랜트, 전력산업 등 전국 1위 | 해운업, 조선업(전국 3위), 석유화학공업(전국 4위), 해수담수화(전국 1위) | 교통운수업, 관광업, 석유화학공업 등 |
| 해양 관련 인프라 | - 연해항만 심수버드 184개소(2009년) - 연해항만 물동량 7.3억 톤(중국 전체 15%)(2009년) - 3억 톤 이상 화물 처리 가능 항만 3개 | - 닝보-저우산항 화물물동량 6.2억 톤(세계1위,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 1,314만TEU(세계 6위) | - 광저우항 화물물동량 4.1억 톤(중국 4위,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 1,255만 TEU |
| 항만 | - 1만톤급 이상 접안 가능한 항만 50개 이상 | - 1만 톤급 이상 접안 가능한 해안선 506km | - 1만 톤급 이상 접안 가능한 항만: 광저우시 64개, 선전시 69개, 주하이시 15개 |
| 해양자원 | - 해저금광 100톤 이상 - 해양석유가스 23.8억 톤 | - 간석지 면적 약 2,700km ² | - 천연가스 1,133억~1,699억m ³ |
| 특이사항 | 중국 최초로 해역사용관리 조례 실행 | 면적 500m ² 이상인 섬 2,878개 보유(중국 전체의 44%) | 해수양식 면적 2,100km ² |

자료: 강승호(2011), 「산둥반도 해양경제구 발전계획」, 『인차이나 브리프(제197호)』, p. 2, (6월 27일); 『浙江海洋经济发展示范区规划』; 『南方日报』(2010. 12. 21), 『广州港跻身世界前五』; 『羊城晚报』(2009. 12. 29), 『南海大气牵引广东巨变』; 『湛江日报』(2011. 8. 19), 『珠江以西沿海地区各市着力发展海洋经济』; 『新浪』(2011. 7. 20), 『深圳概貌』.

4. 평가와 전망

- 중국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나 지역별로 특화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 중국은 2003년 발표한 「전국 해양경제 발전규획」에서 자연조건, 경제수준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연해지역을 11개 종합경제구로 구분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왔음.
- 올해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도 「전국 해양경제 발전규획」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공간적 범위나 계획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음.
- 3개 지역의 해양경제 발전현황과 발전규획 내용을 비교할 때 △ 산둥성은 해양 관련 과학기술 발전 분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한·중일 자유무역 선도구역으로 육성하고 △ 저장성은 중국 최대의

경제권인 창장삼각주와 유일한 군도 형태의 신구를 배경으로 한 물류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 광둥성은 주변 지역 및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화시키고 있음.

- 중국은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양경제 육성시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경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 최근 푸지엔(福建),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장쑤(江蘇), 하이난(海南) 등 연해지역에서도 해양경제발전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계획이 국가급으로 격상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나 만약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해양경제가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지역간 해양산업 개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¹⁸⁾ 특정 업종에 대한 중복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GRDP 규모 확대에 영향력이 큰 철강, 석유화학, 석유·가스개발 등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환보하이만의 경우, 톈진시, 허베이성 탕산(唐山)시와 창저우(滄州)시, 랴오닝성의 잉커우(營口)시와 판진(盤錦)시 등 연안도시들이 모두 철강·석유화학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¹⁹⁾

■ 또한 최근 보하이만 기름유출사건, 어업자원 감소 등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간 공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짐.

- 일례로 중국 최대의 해상유전인 보하이만에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원유 유출로 인해 허베이성, 랴오닝성, 톈진시 등 연안지역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피해액이 8월 25일까지 10억 위안(1,700억 원 상당)에 달했음.
- 이에 따라 한·중 양국 정부는 8월 26일 샤먼(廈門)시에서 제16차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보하이만 기름유출 사고를 포함해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²⁰⁾ KIEP

18) 『新浪』(2011. 9. 7), 「广东加入海洋经济角逐 财税金融政策将予以支持」.

19) 『中国经营报』(2011. 8. 6), 「发展海洋经济应有所为有所不为」.

20) 외교부(2011. 8. 28), 「한-중 해양오염관련 협의 결과」 보도자료.